

금주의 농사메모

기 간 2022년 4월 3일 ~ 2022년 4월 9일

제 공 경상남도농업기술원

내

용

건전한 묘 생산을 위해 종자소독을 철저히 하고 배수가 불량한 맥류 포장 정비와 보통재배 고구마 싹 틔우기에 신경 쓰며, 양파 노균병 방제, 과수원 저온 피해 예방 사후대책 관리에 힘쓴다.

1. 벼농사

- 벼씨의 균일한 파종을 위해 소금물가리기 작업 전에 정선작업을 실시하며, 종자량은 모를 낼 논에 드는 육묘상자를 고려하여 약 10% 정도 여유 있게 준비한다.
- 관행의 벼씨 약제침지소독법은 적용약제를 물 20L에 종자 10kg을 벼씨받아기(온탕소독기)를 사용하여 30℃에 48시간 담가 소독한다.
-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소독은 1차로 60℃물 100L에 마른 벼씨 10kg을 10분간 담가 소독한 후 냉수에 10분 이상 담그는 온탕소독을 한 후 친환경자재를 활용하여 소독하면 효과가 높다.
(온탕소독할 벼씨는 사전 침지 및 염수선 금지)
- 벼씨 소독 후 종자 담그기는 적산온도 100℃ 기준으로 15℃에서 7일 동안 실시하고 신선한 물로 갈아주어 벼씨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 주도록 한다.

2. 밭작물

- 봄철 맥류 논 포장과 배수가 불량한 곳은 양쪽에 보머리를 트고, 배토기 등을 이용하여 배수구 재정비로 습해를 예방하고 습해로 식물체가 황화현상을 보이면 요소 2% 액으로 10a에 100L를 2~3회 뿌려 준다.
- 고구마 재배를 위해 10a에 필요한 묘는 4,500~7,100본 정도이고 매 회 1,500~2,200본의 싹을 생산할 수 있는 씨고구마를 준비해야 하는데 씨고구마 1kg에 묘 생산량은 20~30개이므로 10a에 필요한 양은 75~100kg 정도가 필요하다.

- 보통재배 씨고구마를 묻은 다음 싹이 트기까지 묘상 온도는 가급적 고온인 30~33℃를 유지하고 싹이 튼 후에는 23~25℃로 조절해 주는 것이 좋은데, 상토의 온도가 38℃를 넘으면 고구마가 썩을 위험이 있으므로 상토위 피복물을 덮은 경우 온도 상승에 유의한다.
- 씨고구마 싹이 늦게 트는 이유는 온도가 낮거나 상토가 건조하기 때문이며 씨고구마가 부패한 경우 상토 표면에 회색의 곰팡이가 보이므로 바로 다른 고구마로 교체 한다.

3. 채 소

- 양과 노균병은 평균기온 15℃, 습도는 95% 이상이며 물방울 맺힘이 2시간 이상 유지될 때 기공(숨구멍)을 통해 침입되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3월 하순 ~ 4월 상순경에 적용약제로 방제한다.
- 고추는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 과실이 달리는 마디 부위가 상승하고 꽃수가 감소하며 꽃의 소질이 떨어지므로 육묘기간 중 햇빛을 충분하게 받도록 해 주어야 하고 정식할 포장에 주는 밑거름은 퇴비와 석회는 2~3주 전에, 화학비료는 이랑 만들기 5~7일 전에 뿌려준다.
- 황사는 작물의 광합성을 억제하고 온도상승을 지연시켜 작물생육 장애를 발생시키므로 황사 발생시 시설하우스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고 황사가 지나가면 동력분무기로 피복재를 세척한다.

4. 과 수

- 개화기 서리 발생조건은 대체적으로 낮 기온이 낮고 오후 6시 기온이 10℃, 오후 9시 기온이 4℃ 이하이고 하늘이 맑고 바람이 없을 때 발생하는데 피해 상습지역은 피해예방을 위해 사전 ‘미세살수시설’인 경우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수원을 확보하고, ‘방상팬’의 경우 지상 7~8m 높이에 설치하여 작동여부를 확인하며 ‘연소법’을 사용할 경우 재료를 과원에 미리 준비해 두고 저온피해가 예상될 때 즉시 가동한다.
- 피해를 받은 과원에서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다음해 개화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적과, 병해충 관리 등 재배관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.
- 열매숙기는 착과가 확실시된 다음 실시하고 마무리 열매숙기도 기형과 등 장애가 뚜렷이 확인되는 시기를 기다려 실시